“마음 열고 당당하게 나섰더니 ‘인기녀’ 됐어요”

⑦ 나 자신부터 변해야 당당한 한국인

편견과 놀림 이겨내고 자신감있게 생활해야
아버지 배려·긍정적인 어머니 성격도 한 몫
“스튜어디스 꿈 이뤄 세계문화 배우고 싶어요”

짙은 검은색 머리카락에 새하얀 피부. 전남 모 고교 3년 김정은(가명·18)양은 다문화가정 2세다. 중국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 외모나 말투는 물론, 친구들과 어울려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여느 한국인과 똑같은 소녀였다.

지난 2일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서 김양을 만났다. 졸업반인 김양은 지난 8월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다소 수줍은 듯 미소를 짓는 김양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성격도 밝고 명랑했다.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메시지도 주고 받았다. 김양은 “친구들이 많아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아요. 자주 연락해요”라고 답했다.

이어 “친한 직장 동료들도 얼마나 많은데…”라며 해맑게 웃는 김양의 얼굴에선 구김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양은 어머니가 조선족인 데다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덕분에 유창하게 중국말을 할 수 있다. 회식 때에는 중국어로 건배를 해달라는 동료의 제의도 마다하지 않는다. 적극적이고 스스럼없는 김양의 성격은 학교나 직장에서 그녀를 ‘인기녀’로 만들었다.

다문화가정 자녀인 김양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한 한국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한 덕분이다. 이주여성을 아내로 둔 아버지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어머니의 성격도 한 몫을 했다. 학창 시절 담임 교사의 관심도 김양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김양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김양은 한국에서 태어난 뒤 중국으로 건너가 외가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때문에 김양은 여느 다문화가정 2세들이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야 했다. 무엇보다 서툰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는 김양의 학교 생활을 힘들게 했다. 또 서먹서먹한 친구 관계와 중국인이라는 편견과 주의의 놀림은 여린 소녀로선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선 서툰 한국말부터 익히기 시작했다. 모르는 것은 무조건 담임 교사와 친구들에게 묻고 상의했다.

닫힌 마음도 활짝 열었다. 이방인 취급을 하던 친구들도 김양의 이야기에 차츰 귀를 열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도 생겨났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김양의 생활은 크게 달라졌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다 보니 공부에도 욕심이 생긴 것이다. 김양은 고교 3년 내내 반에서 3등 안에 들 정도로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취업 관련 자격증도 땄다.

특히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갖고 있는 김양은 고교시절 외국어 표현력 경시대회나 이야기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온갖 상을 휩쓸었다. 이같은 김양의 노력은 대기업 취업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양은 “자신감을 갖고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피해 의식을 버리고 당당히 현실에 맞서지 않고서는 영원한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이방인이라는 주변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며 “솔직히 아직도 어머니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밝히기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당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최근 위암 수술을 받은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대학에 진학해 스튜어디스의 꿈을 펼칠 계획이다.

그녀는 “스튜어디스가 되면 직업의 특성상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 줄 것 같다”며 “해외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보고 배우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천안=이종행기자 golee@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전남 다문화가정 자녀로 유명회사에 입사한 김정은(가명·18·오른쪽)양이 지난 2일 천안에 있는 회사 앞에서 친구와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양이 “어머니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며 얼굴 공개를 꺼려해 모자이크 처리했다.

/천안=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주여성 “자녀 학업·교육비 지원 절실”

광주·전남의 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으로 ‘기초 교과과정에 대한 보충 지도’와 ‘학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등을 꼽았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이주여성 1210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광주의 이주여성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31.7%가 ‘학교 교육비와 급식비 지원’을 꼽았다. 이어 ▲기초교과지도 27.4% ▲한국어·한글 교육 11.2% ▲심리상담 7.3% ▲진학지도 6.6% 등의 순이었다.

이는 국제결혼을 통해 광주에 정착한 이주여성 10명 중 6명 가량은 취약한 경제사정과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해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와 기초교과 보충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전남은 ‘기초교과지도 지원’을 꼽는 응답자가 전체의 32.5%를 차지해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을 희망하는 비중(2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한국어·한글 교육 10.0% ▲진학지도 7.2% ▲심리상담 6.8% 등이었다.

전국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거주에는 이주여성들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주 여성이 바라는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지원 (단위 : %, 명)

구분	필요 없음	한국어 한글교육	기초 교과지도	모국어 교육	심리 상담	진학 지도	학교교육비 급식비지원	기타	계(수)
전체	9.5	9.3	27.8	8.1	5.6	8.0	25.5	6.1	100.0(13,407)
서울	14.8	7.4	23.9	9.2	5.4	7.5	25.0	6.9	100.0(2,628)
부산	9.8	10.0	25.1	11.5	5.3	8.4	23.5	6.4	100.0 (642)
대구	7.2	7.6	30.4	7.0	2.3	11.4	26.8	7.2	100.0 (473)
인천	11.1	6.4	24.6	7.9	6.4	7.3	28.8	7.6	100.0 (865)
광주	5.9	11.2	27.4	5.6	7.3	6.6	31.7	4.3	100.0 (303)
대전	14.1	9.0	23.9	11.8	7.5	8.6	19.2	5.9	100.0 (255)
울산	13.9	6.7	27.8	9.0	5.4	9.4	22.0	5.8	100.0 (223)
경기	9.4	10.9	24.9	7.9	5.2	9.4	26.1	6.3	100.0 (2,955)
강원	5.5	10.8	35.0	6.4	6.4	4.7	25.0	6.2	100.0 (548)
충북	4.9	14.5	32.2	9.1	6.6	6.4	22.1	4.2	100.0 (407)
충남	6.3	9.3	29.9	8.0	6.9	8.0	26.6	4.9	100.0 (792)
전북	5.3	10.5	36.6	7.6	4.1	7.1	23.9	4.9	100.0 (675)
전남	7.6	10.0	32.5	7.3	6.8	7.2	24.5	4.1	100.0 (907)
경북	6.5	8.5	33.0	5.5	5.6	6.8	29.3	4.8	100.0 (709)
경남	8.1	9.4	28.4	7.9	6.5	9.4	23.0	7.2	100.0 (901)
제주	4.0	9.7	35.5	12.1	2.4	2.4	29.8	4.0	100.0 (124)

〈자료 : 보건복지부〉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지
◆등록번호 616-81-68236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고흥)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 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99,000원)
잠수함, 유람선,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목포 출발 “목카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9시 또는 14:30)출발-호텔1박
· 2일째 :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6:50)출발(단, 일요일은 16:30출발)
★ 출발일 : 매일 출발
★포함내역 : 왕복선박,숙박2박(4인1실),조식2회,중식2회,석식2회,차량료,입장료,주차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 녹동 남해고속터미널(9:10)출발-호텔1박
· 2일째 :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7:10)출발
★ 출발일 : 매일 출발 (일요일 별도 문의)
★포함내역 : 왕복선박,숙박2박(4인1실),조식2회,중식2회,석식2회,차량료,입장료,주차료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한라산 등반 15,000원
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주중+주중)
179,000원(주중+주말)
※ 유류 할증료 별도,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제주 올레길 스페셜 투어 1일 15,000원
[1박 2일 목카투어]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 4일 목카투어] 119,000원 (한라산등반 + 2일 제주관광)
[2박 3일 목카크루즈 + 항공투어] 129,000(주중) / 149,000(주말)
“목카렌트카투어” 107,000원 (4인 기준)
★일정 –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09:00)출발 – 제주항 도착 – 호텔 1박
· 2일째 : 자유관광 – 호텔 1박
· 3일째 : 자유관광 – 제주항(17:30) 출발
♠ 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
● 농 협 ● 정정아 1079-12-183903
배편, 호텔, 펜션, 렌트카 예약
문의 :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 www.jejumt.net
협찬 남해고속 씨월드고속훼리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Daum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영업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